2022/07/21

ESG Wannabe

SK증권 Active전략팀
반도체 Engineering Technology 한동희. 3773-8826

Non-fuel 스크러버 도입을 위한 노력 지속 중

● 반도체 산업 내 Non-fuel 스크러버 도입을 위한 노력 지속 중

- 반도체 공정 내 발생하는 PFCs 분해는 스크러버가 담당. 기존 스크러버 시장은 소재의 넓은 분해 Coverage 와 비용 효율성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Burn-wet 스크러버가 주류였지만, 화석연료 중 하나인 LNG 가스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문제 의식 대두
- 삼성전자의 경우 SK하이닉스 대비 Burn-wet 타입의 스크러버를 주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Non-fuel 스크러버 도입에 대한 필요성 상승. Plasma를 Base로 한 하이브리드 스크러버, Heat-Catalyst, Heat-wet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관련 업체들과 활발히 진행 중
- 기존 스크러버 시장 주요 업체들은 유니셈, GST, 영진아이엔디, 엠에이티플러스 등. 대부분 주력 거래선이 정해져있는 모습이었지만, Non-fuel 스크러버 시장에서는 기존 거래선이 아니더라도 개발 참여에 대한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보임. 이는 Non-fuel 스크러버에 대한 니즈가 과거 대비 높아졌음을 의미
- 현재 장비 Demo가 진행되는 단계로, 결과에 따라 각 업체 간 고착화 되어있던 점유율의 변화 가능성 존재
- 다만, Plasma, Heat base의 스크러버의 경우 전력사용량이 높음. 2021년 삼성전자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이 16.9%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, 국내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3% 미만인 상황에서 Non-fuel 스크러버를 지원할 전력인프라의 준비 기간 및 의사결정은 다소 더딜 수 밖에 없다고 판단
- 단기적으로 양산 공정에 적용될 가능성은 제한적. 2024~2025년 적용 시작 예상. 다만 방향성은 명확

SK 증권

Compliance Notice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본 보고서의 발간시점에 해당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(6개월 기준) 15%이상→ 매수 / 15%~15%→ 중립 / -15%미만→ 매도